

#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 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김민정(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부문문(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석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 유학생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조사한 통계월보(2011)에 의하면 2011년 8월 30일 현재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 유학생이 66,56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73%를 차지한다. 각국 유학생들의 문화차이, 언어장벽, 생활환경 적응도 등이 다르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들의 교육환경 내에서 학업요구에 의한 억압,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불안, 문화적 또는 가치적 갈등, 향수병,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같은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Lewthwaite, 1996, p. 174). 이에 따라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한국에는 이미 사용자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중독 등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이 목표로 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유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35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한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교차분석, 요인분석과 계층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에 성별에 따라 게임, 채팅, 온라인 TV 등의 사용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더 길고, 채팅시간과 온라인 TV 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시간은 학생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쳐 게임시간이 길수록 학교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게임, 채팅, 온라인TV, 커뮤니티 기능의 사용 시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 한국어 실력, 학교 성적에 따라 중국 유학생의 유학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유학생 생활 만족도가 더 높고, 한국어 실력과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유학생 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체류기간과 거주형태에 따른 유학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언어실력, 성적에 따라 유학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劉煒(2008, p. 4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중국 유학생은 비중독인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될 수 있는 학